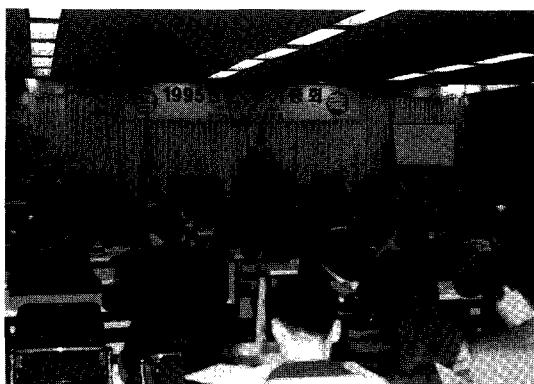




'95년도 본회 정기총회 개최



'95년도 본회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대의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94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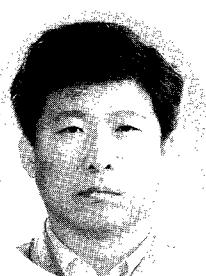
이와 함께 농림수산부 기축위생과 배상호과장

이 잔류물질 규제 실태와 방향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국내·외 축산물의 잔류물질 규제 실태와 환경보존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계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및 관련업체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 **공로패 :** 이광초(경인축산), 박수남(복지농원), 정호홍(유림농장), 김종고(벤엘농장), 조만호(원일농장) 박원모(금지게농장), 김영섭(행군제농장), 정한명(정한농장), 횡수연(현대농장), 이보균(본회 직원)
- **감사패 :** 김성환(경북 양계협동조합) 신명수(동방유량(주) 대표) 박번홍(신영종합상사(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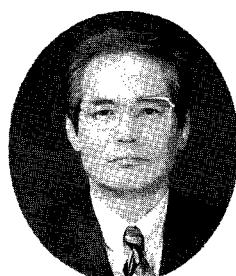
• 공로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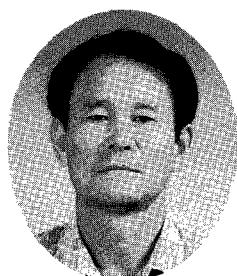
△이광초



△박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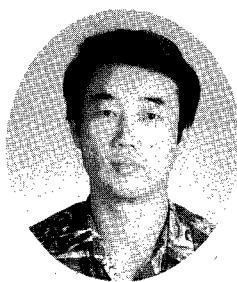
△정호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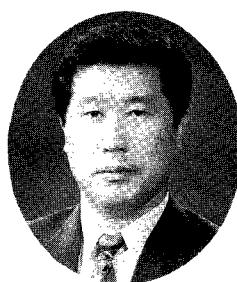
△김종고



△조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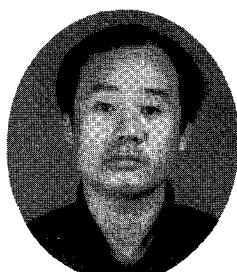
△박원모



◇ 박번홍



△김영식



△정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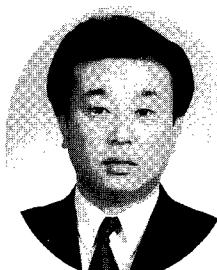


△황수연



△이보균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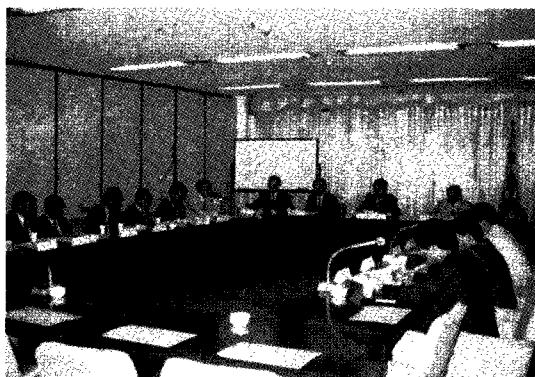
△김성환



△신명수

'9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94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안) 심의

본회는 지난 1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95년도 제 1 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4 제 4 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 보고, 협회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이어 정기총회에 상정될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부의안건으로는 △'94 사업계획 일부 변경 및 '94 제 2 차 추가경정 예산(안) 추인, △종계 · 종란 수입 및 관리요령 추인, △감사보고, △'94 유공포상대상자 선정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94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산 보고(안), △'9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

정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의 탄저병 보도에 대한 60만 양축농가의 입장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탄저병 관련발표에 대해 탄저감염의 발표경위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공개 질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보건 복지부의 탄저병 보도에 대한 60만 양축농가의 입장

◦ 발표 경위

지난 2월 8일 보건복지부는 '95년 1월 17일 8명이 20두분의 소골을 먹고 2일 후인 1월 19일 그중 2명이 구토, 복통을 일으켜 1월 23일 입원한 후, 2월 5일 국립 보건원에 의뢰하여 혈청검사를 한바 탄저병에 감염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서 탄저가 확실하다면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발생이 되어야 하고 탄저에 걸린 소가 있어야 하며, 탄저균이 분리되어야 하는 등 국립보건원의 발표에 많은 의문이 있지만 곤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믿고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탄저병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아무런 후속발표도 없었다.

다만 농림수산부가 수의과학연구소 천문팀을 통하여 조사한 바 탄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하였고 복지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탄저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 보건 복지부는 탄저감염 발표경위를 국민에게 밝혀야

이번 보건복지부의 소골을 먹고 탄저에 감염되었다는 발표로 소골은 물론, 쇠고기의 막대한 소비 위축으로 UR협상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타격과 피해를 주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위생도축 과정을 거쳐 공급된 축산물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여 줄 것을 전국

축산농민은 강력히 요구하며, 소비자인 국민의 불안을 씻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공개질의

1. 혈청검사 만으로 탄저라고 발표할 수 있는가?

탄저병의 최종 확진은 탄저균의 확인과 이를 배양하여 감수성 동물에 접종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혈청반응은 탄저균 이외의 다른 균과의 교차반응이 심하므로 신뢰성이 없어 보조진단 방법으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탄저병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과서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탄저균 분리를 하지 못하였으면서도 혈청 반응으로만 성급히 탄저라고 발표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2. 탄저에 감염된 소는 일반적으로 4시간 이내에 급사 하든가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소의 모든 자연공으로부터 출혈증상을 보이며 급사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도축장에 감염우가 출하되기는 (수송거리 계류시간 등을 생각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소골에서 탄저균이 유래하였다면 이미 그 소는 도축장에 출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극히 심각하고 내장기의 악취, 출혈 등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현재 단일출하된 소사육 농가나 주변 농가를 조사한 바 모두 정상이었음에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탄저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3.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보조진단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확실성이 없는 혈청검사 외에 탄저병으로 확진할 수 있는 탄저균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 양축농가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 공포에 대한 대책과 책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발표를 요구한다.

몇년전 보건사회부는 잔치집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먹고 콜레라에 감염환자가 발생하였다는 등 즉흥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코미디와 같은 발표로 양축농가를 괴롭혀 웃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에 또다시 비과학적이며, 즉흥적인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공개질의를 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양축농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요구하며, 그러하지 못할경우 예상되는 모든 책임

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2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피해로 심한 종계장은 20~30%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불의의 화재사고로 종계장 및 부회장들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단열재 선택 등 화재원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한편 노수현 사무관(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이 참석하여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축산정책 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있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2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계란의 유통이 비교적 활발해져 난가가 70 원(특란)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무역의 마찰로 중국에서 싼값으로 수입되던 사료원료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원가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수입개방에 따른 조란(전란액)의 수입관리요령에 대한 설명회도 이루어졌다.

검정위원회 개최 제42회 육용계 검정 최종성적 검토



'95년 제1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8회 산란계 검정중간성적 검토에 이어 제42회 육용계 검정 최종성적 검토가 있었으며 종계일반검정 심의가 있었다.

진천육계분회 단합대회 개최

본회 진천육계분회(분회장 반명수)는 최근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회원간의 의견교환, 윷놀이 대회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